



## 세분화된 커리큘럼으로 환경 전문 인재 양성



에어로졸 연구실 모습

###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환경학과 이태형 교수

아직도 환경학을 전공하면 생계유지가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환경학과 이태형 교수는 최근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학의 비중이 커졌으며 아랍어, 인도어 등 희귀 언어를 터득하면 취직하기 쉽다고 강조했다.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환경학과를 소개한다.



LEE  
TAE  
HYOUNG



#### 학과소개 부탁드립니다

1989년 설립됐으며 현재 16명의 교수진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점은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1, 2학년 때 배운 환경학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대기, 수질·폐기물, 생물·생태 등 총 세 가지 분야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이수하게 됩니다.

#### 졸업 후 진출 분야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환경학과 졸업하면 뭐 먹고 살지?'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 관련 국제기구 또는 비영리단체, 연구소, 기업까지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경영과 친환경 제품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환경 컨설팅 회사도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 이중전공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화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등을 추천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랍어, 인도어, 헝가리어 등 희귀 언어도 괜찮습니다. 커리큘럼이 잘 되어있을 뿐 아니라 취업하는데도 유리합니다. 중동의 경우 석유 시추로 인한 토양 및 대기오염 사업과 물 부족 해결을 위한 해수담수화 사업이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환경학과 학생이 아랍어를 부전공 혹은 이중전공으로 선택했다면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인재상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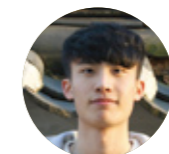
공식적으로 정해진 인재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다양한 지식을 배우길 바랍니다. 환경학을 공부할 때는 틀에 박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현상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선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필요합니다. 수업시간 3시간 중 1시간은 타 학과 학생들이 본인의 학과와 환경을 연관지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를 소개해주세요?

저는 에어로졸 연구실 지도교수로 있습니다. 에어로졸은 미세먼지, 안개입자, 구름입자 등 공기 중에 부유하는 모든 작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의 먼지 입자 크기, 개수 등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입자 구성 물질과 발생지 등 화학적 특성을 파악합니다.

####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환경학과는 전망이 밝습니다. 인문적인 소양이 있어도 환경 보호 단체나 UN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환경학은 다양한 지식을 요구하는 종합학문으로 진로도 다양하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학과입니다.



글·사진, 성균관대학교 푸른누리 좌소영(오른쪽), 윤종현 기자